화폭에 드리워진 물결…인간은 물 앞에 어떤 존재일까

'극한호우'를 그대로 화폭에 옮겨온 듯하다. 요즘의 장마가 겹쳐져 '불편'하다. 화폭에 드리워진 질풍노도의 물결은 현실의 물난리를 환기한다. 세차게 쏟아지는 비의 종착지는 결국 바다일 것인데 '눈앞의 바다'가 예사로 보이지 않는다.

인간의 역사는 물의 역사라 해도 무방할 만큼 물은 인류에게 필수불가결한 요소다. 물 앞에서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 그림을 바라보며 한동안 생각하게 된다. 하늘과 바다의 경계는 없어 보인다. 어디가 하늘이고 어디가 바다인지 구별할 수 없다. 그 구별할 수 없음이 바다를 장엄하고 신비롭게 보이게 한다.

김25 작가의 '조우하다 방주(方舟)'전. 동구 은암미술관 기획초대전(27일까지)에서 만난 작가는 "물은 소통의 매개체이자 근원적 어휘"라고 했다. 그러면서 "바다를 좋아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작가는 최근 몇 년간 '바다' 시리즈에 천착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신작을 대거 선보이는 한편 트레이드 마크인 '바다'를 전면적으로 소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대작만 25점에 이른다. 그림들은 시적인 감흥과 문학적인 서사, 추상적인 이미지가 직조돼 있다.

특히 '노아의 방주'라는 작품이 눈길을 끈다. 성경에는 노아의 홍수가 40일에 걸쳐 이어졌고 하늘 아래 모든 것을 덮어버렸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하늘과 맞닿은 수면에 용광로가 끓는 듯 물결이 휘몰아치고,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킬 듯 요동을 한다. 붉그락 푸르락 거센 물결이 화폭 밖으로 튀어나와 집어삼킬 기세다. 추상과 재현의 경계를 넘나드는 심연의 바다는 보는 이에게 물난리의 두려움을 상기시킨다. 인간의 유한함과 무력함 그리고 자연의 위대함을 깨닫게 하는 것은 지나치게 고전적인 의미일 것이다.

김허경 평론가(호남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는 "김25는 자신의 감정을 주관적인 독백형식으로 묘사했던 서정적인 텍스트에 머물지 않고 카오스의 바다 위, 문학적 서사를 탐험하고 있다"고 평한다.

작가는 "현대인들에게 '방주'란 어떤 의미가 있으며 물은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림을 통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성경에는 하늘이 준 형벌, 다시 말해 심판의 메시지로 홍수를 허락한 측면이 있다"면서 "동시대적인 관점에서 구원과 방주를 모티브로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노아의 방주' 외에도 '오디세이아'를 모티브로 풀어낸 작품도 있다. 영웅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10년의 여정을 그린 작품이 '오디세이아'다. 김 작가는 문학 작품의 서사에 담긴 바다를 인간의 의지가 투영된 것으로 바라본다.

이밖에 전시실에는 용오름 시리즈의 작품도 다수 만날 수 있다. 물기둥이 하늘로 치솟는 용오름 현상을 포착해 일필휘지로 그린 듯한 작품은 상서로운 기운마저 감돈다.

이종은 은암미술관 학예연구원은 "바다 시리즈를 통한 텍스트가 투영된 세계에 이어 또 다른 세계로의 진입을 보여주고 있다"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세계로의 초대에서 우리는 인간 존재에 대한 확실성과 더불어 인간에 대한 용서와 구원에 대한 기대를 가져본다"고 평한다.

홍익대 서양화과와 동 대학원을 나온 김 작가는 1990년 첫 개인전을 시작으로 광주, 서울, 오사카, 도쿄 등지에서 개인전을 가졌으며, 멕시코 시티, 토론토 등 다수의 그룹전에 참여했다.

/글·사진=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노아의 방주' 앞에서 포즈를 취한 김25작가.

> 김25 작가 '조우하다 방주'전
> 27일까지 동구 은암미술관
> '노아의 방주' 등 대작만 25점

'현재, 그리고 絃'

소리아 아트컴퍼니 공연, 24일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불어라 불어라 커져가는 풀무질 소리에도 이야기가 있다. 저만치 가는 바람이 뒤돌아보듯 멀리서 희망을 불러본다"

소리아 아트컴퍼니(대표 표윤미·사진)의 정기연주회 '현재, 그리고 현(絃)'이 24일 오후 6시 30분 KCA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대강당에서 열린다. 이번 공연은 소리아 아트컴퍼니와 남도가야금병창진흥회가 주관하고 전라남도문화재단, 광주일보 등이 후원한다.

공연의 막은 호쾌하고 불규칙한 가락으로 알려진 '강태홍류 짧은 산조 중 다스름'이 연다. 본 곡 연주에 앞서 호흡을 가다듬는 '다스름'은 이어지는 악곡들에 대한 서주 역할을 맡아 분위기를 고조시킨다. 김동근의 장단에 맞춰 표윤미, 김소정, 한아름 등이 소리를 펼친다.

이어 국악아카펠라 '풍구소리'가 공연장에 울려퍼진다. 해금, 꽹과리 등 우리 전통악기의 가락에 맞춰 울려 퍼지는 후렴구 "헤헐싸 불어두야 신선풍기로구나"는 어깨를 들썩이게 한다.

아울러 흥보가의 '중타령'과 '구만리'가 가야금 합창을 통해 이어진다. 한 스님이 흥보를 가엽게 여겨 그의 집에 동냥아치를 가장해 방문한 대목을 담아내는 '중타령'은 흥을 돋운다. 흥보가 새끼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고 구만리 창천 밖 강남으로 떠나는 '구만리'의 서사에도 감상의 묘미가 있다.

한편 공연은 '현재, 그리고 현'이라는 제목처럼 가야금, 해금 등의 현악기가 주도한다. '제비점고~제비노정기'와 경기민요 한오백년과 강원도 밀양아리랑, 가야금병창 2중주 '어허영차'와 3중주 민요 '동백' 등에서 우리 악기의 풍치를 느낄 수 있다.

공연을 기획한 표윤미 대표는 "아끼고 아껴 골라낸 농밀한 아름다움을 함께 나누는 수단으로써 음악은 원동력이 된다"며 "공연장에 찾아 멋진 날 추억을 만들고 힘을 받고 돌아가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입장료 무료, 자세한 사항은 소리아 아트컴퍼니에 문의.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김진희(왼쪽에서 다섯째) 소프라노와 출연진. 〈질러콘서트 제공〉

이상향에 대한 동경…초현실적인 풍경

강일호 개인전, 8월 13일까지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인간에게는 원초적인 욕망이 있다. 욕망은 지극히 사적인 것일 수도 있고 이상향에 대한 동경일 수 있다. 욕망의 실체가 무엇이든 인간은 끊임없이 욕망을 매개로 자신의 삶을 추구한다.

강일호 작가의 작품은 동화적이면서도 환상적이다. 현실의 세계와 유토피아의 세계가 충돌하기도 하고 몽환적으로 그려지기도 한다.

강일호 개인전이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에서 8월 13일까지 열린다. 주제는 '노스텔지어-세레나데'.

전시실에 들어서면 전혀 다른 세계에 와 있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우주 어느 별에 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무언가에 이끌려 제4차원의 세계에 온 것 같기도 하다.

작품이 주는 이미지는 초현실적이어서 현실과 유리된 듯한 느낌이 강하다. 작가는 상징적인 소재를 선택해 어울릴 수 없는 이미지를 조합하고 배치했다.

다수의 작품에 삽입된 회전목마는 윤회를 상징한다. 윤회는 말 그대로 '연결'이며 '공존'이며 삶과 죽음 너머의 이상향을 상정하기도 한다.

작가가 주제를 '노스텔지어-세레나데'로 명명한 것은 이상향에 대한 동경, 초현실적인 세계에 대한 추구는 향수라는 이미지와 의미에 수렴된다는 의미일 터다.

'녹턴', '노스텔지어', 'dream' 등의 작품은 이번 전시의 주제를 가장 명징하게 보여준다. '녹턴'의 작품에 등장하는 다양한 오브제들, 사슴, 새, 꽃, 이순신장군, 성화는 어떤 연관 관계를 찾을 수 없다. 현실 너머의 초현실의 세계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기 때문이다. 거대한 꽃송이에 앉은 여인이 하늘 저편을 바라보며 심오한 표정을 짓고 있는데, 작가의 내면에 드리워진 순수와 이상을 향한 염원으로 다가온다.

갤러리 관계자는 "현실과 비현실이 뒤섞인 시각적 서사는 문학적 상상력을 주기에 충분하다"며 "마치 꿈을 꾸는 듯한 몽환적인 작품들은 관람객들에게 동화적이면서도 초월적인 세계의 이미지를 선사할 것"이라고 평했다.

'녹턴'

한편 강일호 작가는 전남대 미술학과(한국화 전공)와 대학원 미술학과를 졸업했다. 허백련 미술상 특별상, 한국화 미술대전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아트광주21, 광화문 국제아트페스티벌 등 다수의 전시에 참여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으로 '질러콘서트'

김진희 성악연주클래스 '질러', 21일 유스퀘어 금호아트홀

소프라노 김진희의 제자들이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으로 무더운 한여름밤을 시원하게 수놓는다.

김진희 성악연주클래스 '질러(Ziller)'가 오는 21일(오후 7시 30분) 유스퀘어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제9회 질러콘서트'를 연다.

공연 제목은 김씨가 첫 음악 제자들과 레슨을 진행하던 중 자유롭게 소리내는 모습에서 착안했다. '음악을 통해 아름다운 소리를 질러보자'는 의미를 담는다.

레퍼토리는 오페라 아리아와 가곡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 광주지역 고등학교 재학생부터 전남대, 조선대 학생, 객원연주자 등이 오르게 된다.

1부는 솔로무대로 펼쳐진다. 플로이드의 악곡에 어우러지는 오페라 '산 위의 나무들'부터 베르디의 선율과 '그리운 그 이름' 등 총 8곡이 준비돼 있다. 무대에는 황다인(전남대 음악학과), 박은진(조선대 음악교육), 신지유(전남대 음악학과) 소프라노 등이 오를 예정.

이번 공연의 방점은 2부에 있다. 클래스와 관련 있는 지인들이 함께 무대를 꾸미기 때문. 임예진, 김희언 등 객원 연주자들의 가곡 '바람이 머무는 날(조수미)', '꽃 피는 날(정환호)'등이 펼쳐지며 지도 학생 중 음악을 전공한 부모님들도 무대에 오를 계획이다.

아울러 숭덕고 재학생인 소프라노 오경은의 독일 가곡 '헌정' 무대도 예정돼 있다. 박찬미(전남대 음악학과)의 '라메르무어의 루치아'도 관객들을 만난다.

공연 관계자는 "무더운 여름이지만 준비한 무대를 빛내주는 건 관객들"이라며 "선물같은 명곡들로 한여름밤의 낭만을 만끽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여름방학 맞이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 8월 8~10일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

'LED 무드등 만들기', 'LED 스탠드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이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이강현·ACC) 창·제작 시설과 기술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활동 교육이 마련됐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 프로그램이 오는 8월 8~10일까지 문화창조원 복합스튜디오에서 열린다.

이번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은 학교에서 접하지 못한 폭넓은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으며 LED 무드등 만들기, LED 스탠드 만들기, 블루투스 스피커 만들기로 구성됐다.

ACC는 지난 2월 겨울방학 동안 문화전당이 보유한 첨단 장비와 설비 등을 활용해 발광 다이오드(LED) 무드등을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ACC 청소년 창작워크숍' 장면. 〈ACC 제공〉

참가신청은 오는 8월 6일(밤 11시까지) ACC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프로그램별로 선착순 20명을 각각 선발하며, 수강료는 무료. 자세한 내용은 ACC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강현 전당장은 "이번 창작워크숍은 평소 접하기 어려운 문화전당의 창·제작 시설을 둘러보고 이를 토대로 작품을 창작하는 데 있다"며 "제작 과정을 통해 콘텐츠를 직접 만들어봄으로써 참가 학생들의 창의력이 확장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서구문화원 'ART LOOKBOOK 학교예술교육 연수'

27~28일 동구인문학당

예술강사와 교사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ART LOOKBOOK 학교예술교육 연수'가 열린다. 오는 27~28일까지 광주 동구인문학당.

이번 연수는 서구문화원이 광주지역 예술강사, 운영학교 교사들을 대상으로 마련했으며 교육역량 강화, 실기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췄다. 프로그램은 통합분야, 분야별 역량강화 프로그램, 교사대상 국악기 실기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27일에는 김혜일 문화공동체 아우름 대표의 '한 사람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김영순 광주문화재단 전문위원의 '협업, 어떻게 해야 하나', 주소연 한국판소리보존회 광주지회장의 '판소리의 이해와 한 대목 배우기'가 진행될 예정이다.

28일에는 이숙영 조선대 교수와 권혜인 전북대 강사의 '무용교육의 흐름과 변화', 윤종금 유연미술관 대표와 윤애실 윤스랩 대표의 '화석시대', 이허련 퓨전국악그룹 예다 대표의 '장단과 민요'가 진행된다. 이번 연수는 서구문화원 누리집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선착순 신청.

지난 2022년 진행된 전통 자개 칠공예 프로그램 장면. 〈서구문화원 제공〉

정인서 광주 서구문화원장은 "이번 연수는 예술강사와 일선 교사들 간 협업이 중요한 예술교육에 대해 방법론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연수 프로그램에는 기본적인 국악 이해 프로그램도 있어 다채롭게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